

옛 그림 속 차 이야기

백성 삶 속에 스며든 차 문화 한 장면 옮겨

삼천년에 가까운 동양회화의 역사에서 민중의 삶이 회화작품의 주요 소재로 다루어진 예를 찾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 이는 전통적으로 그림을 감상하고 품평하던 계층이 왕실과 귀족, 문인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투차도(圖茶圖)'는 평범한 민중의 삶 속에서 그 시대를 대표할 만한 기념비적인 장면을 담은 보기 드문 예이다.

그림은 송대에 전례 없이 발달한 상업과 차가 유행했던 시대 상황을 생생히 전달하고 있다. 당시에는 다양한 산업을 이끈 국적인 판로를 획득하며 급속히 발전했고 농업은 처음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대량 생산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특히 차는 황실에서 농민들이 만든 차를 전매해 직접 제다와 판매에 관여했고 유통에 따른 막대한 조세를 거둬 나라의 재정을 굳건히 했다. 따라서 차 생산은 송나라의 경제적 기반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였다. 그러나 차량을 파는 이들의 행위는 송대 평민문화뿐 아니라 그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상징적인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필자미상, '투차도(圖茶圖)', 비단위에 채색, 34.1x40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다. 화면 좌측하단에 서 있는 인물은 왼손에 많은 잔을 들고, 바구니를 잡은 오른 손에 힘을 주고 있어 그가 다음 차례인 것으로 보인다. 그 뒤의 인물은 탕병을 대우기 위해 부젓가락(火箸)으로 바구니 아래에 깔린 숯들을 고르고 있다.

이들은 모두 차를 끓이기 위한 이동형 다구세트(茶爐)를 갖추고 있는데, 따뜻한 차를 팔기 위해 화로까지 들고 다니는 모습이 이채롭기만 하다. 다구를 살펴보면 대나무로 만든 다롱(茶籠)에 수많은 찻잔을 담고 숯을 담은 바구니(鳥府)와 탕병바구니, 한쪽 옆구리에는 바람을 일으켜 불길을 세우는 우산모양의 풀무까지 들고 있는 것이 보인다. 이렇게 그림의 인물들은 비슷한 의복과 기물을 갖추고 있지만 서로 다른 각도에서 생동감 있는 표정과 자세를 취하고 있어 전혀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또한 생생한 당시의 모습과 풍속이 들어가 있어선지 보는 이로 하여금 보편적인 공감과 정서를 자아낸다.

남송대 그림 중에는 무수히 많은 물건을 등에 멘 박물장수를 그린 예도 있는데, 이처럼 세부 표현이 복잡하고 다양한 종류의 기물이 등장하는 경우, 화가는 섬세하고 능수능란한 테크닉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었다. 당시 그림을 감상했던 사람들은 황족이나 고위관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는데, 그들은 익숙하지 않은 저자거리의 풍경을 담은 그림에 흥미를 느꼈을 것이며 한편으로는 이를 통해 민중의 삶도 읽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랑 lang312@hanmail.net 동아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건이야기



거조암 영산전에는 오백나한이 모셔져 있다. 10대 제자와 16성종을 포함해 정확히 오백 스물여섯 분이다. 영산전의 문을 여는 순간, 나를 따라온 시간은 도마뱀의 꼬리처럼 떨어져 나갔다. 되돌아갈 기억이 없다면 이곳은 영락없는 부처님시절이었다. 시절을 가늠할 수 없는 눈빛들은 먼 훗날의 이야기를 하는 듯했고, 나한 앞에 두 손 모은 불자는 그 이야기를 아는 듯했다.

두고 온 기억을 따라 영산전 밖으로 나왔을 땀 날이 저물고 있었다. 마당엔 걸어진 그림자들이 모여들었다. 문득 영화 '박물관이 살아있다'가 생각났다. 어둠이 내리고 영산전의 문이 닫히고 나면 경비원 래리처럼 미륵부처님이 나투시고, 오백나한이 부처님께 절을 올리면 영산회상도의 그림이 살아날 것만 같았다. 우리가 모르는 일이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을 것만 같은 저녁이었다.

옛 관화의 세계

담연 스님이 지관법을 전수하다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당나라 때의 스님인 석담연이 그의 스승인 좌계 선사로부터 천태종의 지관법(止觀法)을 전수받은 후에 지관법을 널리 퍼는 장면을 판각한 작품이다. 담연(湛然, 711~782) 스님은 중국 천태종(天台宗)을 중흥시킨 제6조(祖)이다. 속성은 최(戴)이며, 강소성 형제 출신으로 형제 존자(荆溪尊者)·묘락 대사(妙樂大師)·원통 존자(圓通尊者)라 불린다. 유가(儒家)에서 태어났으나, 뒤에 현량(玄朗)을 스승으로 해 천태에 입문했다. 율(律)·선(禪)·화엄(華嚴)·유식사상(唯識思想) 등을 깊이 공부하고 강남(江南)에서 천태의 저술을 연구, 그 선양에 힘썼다. 만년에는 천태산 국청사(國淸寺)로 돌아갔다. 저서에 〈법화현의석점(法華義疏釋籤)〉을 비롯한 다수가 전해진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담연 선사는 문인들에게 말하였다. '도를 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예전 선대의 지인들은 고요함으로써 그 근본을 비취 보고 움직임으로 사물에 응하였으나 이 두 가지에 모두 주착하지 않고 마침내 큰 지방의 세계를 밟게 됐다. 지금 사람들은 혹 공에 모든 것을 버리기도 하고, 유에 달라붙기도 하여 자신도 눈이 멀

시가 있는 도량

각연사 가는 길

걸어온 길을 거두어 입구를 봉해 버린
선승의 짧은 생이 풀꽃으로 흔들리는데
내 정작 길 위를 돌며 길을 자꾸 놓친다

멀리서 바라봐야 제 모습 보인다지만
애초 하늘 버리고 무릎 맞대 앉은 산
깊고도 그윽한 속내가 졸졸졸 정겹다

길은 낡아어도 향기 짙은 가을 햇살
누가 알기나 할까 저 이파리 속 벌레 울음
검붉은 제 속을 비워 껍데기를 드리운다

눈물 다 쏟아내고 정좌한 구름 한 채
못물 깨우는 바람 일순 짙은 사라지고
비로전 풍경소리는 마을로 내려가네

-권강하, 시집 <외도의 시간>에서



고관화박물관 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담연지관(湛然止觀) 편, 불암사 판 1673년 간행, 반곽(半郭) 27.2x18.0cm

2009' 일봉법왕 문도의 날 대축제

삼보에 귀의 하옵고
일봉법왕 문도님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금번 아래와 같이 일봉법왕 문도의날을 기념하여 일봉조사전 기공식과 함께 일봉법왕 문도의 날 기념행사를 병행하고자 하오니 동참하시어 법석을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09년 10월 10일 (오전 11시 부터) ■ 장소: 충북 청원군 미원면 쌍이리 법왕청

1부 - 일봉조사전 기공식 및 일봉법왕 일대기 출판기념회 / 2부 - 법요식 및 시상식, 가수초청 공연

※ 참고사항

- 일봉법왕큰스님으로부터 건당 및 수계를 받으신 스님, 법사(문, 형제 및 손상좌 포함)님들께서는 이메일wbstf@yahoo.co.kr 또는 02)3216-3216으로 주소, 성명, 법명, 수계년도 등을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법왕청 제2담화정사에 건립 예정인 일봉 조사전에 문도님들의 이름과 법명을 동판에 새겨 영구 보존하기 위하여 접수하고 있습니다.
- 세계불교 초대법왕 일봉 서경보 큰스님의 저서나 사진, 비디오테이프 및 큰스님과 인연이 있는 물품을 소장하고 계시는 분께서는 저희 일봉법왕문도회 02)3417-1010으로 기증해 주시면 특수 제작하여 큰스님의 조사전에 영구보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세계불교법왕청 평화재단 ☎ 02)3217-3217 우 110-846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76번지 귀빈빌딩 5층
일 봉 법 왕 문 도 회 ☎ 02)3417-1010